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 사회사목국 국장

## | 서로를 돌본다면 이 세상은?

오늘 복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마태 25,21 참조).

올 설 연휴를 지낸 직후부터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많은 이가 자신의 안위에 몰두하며 마스크를 쓰고 누가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앓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스크가 없는 이들을 위해 집에 여유가 있는 마스크를 모아주고 제안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나 건물에 대한 방역작업을 시민 스스로 모여 솔선수범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내(가족)가 소유한 자산(부, 재능)은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자연의 도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눠야 하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숭배(재물, 권력, 쾌락, 국가 등)하면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13항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시며,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오늘은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며, 교황님의 담화 주제는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주위에 차별받는 분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연령 차별, 계급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인종 차별, 종교 차별, 직업 차별, 학력 차별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고 선포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43항).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후세, 파키스탄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잠언 31,20)**

손안에 올려진 몽당연필은 약소하나 하얀 노트 위에 적어 나갈 자신의 미래는 저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 미래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커진 꿈은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